

사회적 학습의 효과와 필요성

이혜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고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존의 교육체계에서 성공한 인재가 학교 밖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의과대학의 교재를 완벽히 다 외웠다고 해서 환자의 병을 잘 고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서의 우등생은 아니라는 비판들 때문에, 전교 수석이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영웅 영화들의 패러다임에도 나타나 있듯이,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대두되게 되었다.

더 이상 인지적 정보의 습득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만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되지 않고 있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공학교육 분야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이 평가할 때, 대학의 공학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대인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소통능력’, 조직의 규율과 관습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적응력’, 배운 것을 현실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력’, ‘책임감’ 등으로 나타났다(2007.6.28. 동아일보). 사회적 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e-Learning으로 인해 기존의 강의실 교육 환경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주는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학습이 사회적, 정서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학업성취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이혜정, 김인수, 2008; Lee, 2004).

2. 동료평가의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동료들은 인지적인 수월성에 대한 기여보다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팀 작업을 코디네이트하는 리더십 등을 보다 높게 평가한다. 즉, 팀 작업을 수행한 후 동료들을 서로 평가한 결과들을 보면, 각 구성원들의 질적인 기여도나 아이디어의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도, 결국 학생들은 공부잘해서 팀에 기여한 것보다는 팀워크 자체를 주도하고 꼼꼼히 챙기며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우수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혜정, 김인수, 2008).
3. 칭찬 피드백만 해준 집단이 비판적 교정적인 인지적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 만족도 측면에서 우월하다. 즉 학생들이 서로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인지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 집단을 나누어 실험을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비판적인 피드백을 해준 집단보다 칭찬만 제공한 집단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혜정, 홍영일, 손지영, 2007).
4.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의 학습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학습을 직접 수행한 집단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를 잘 정리해서 개별적 학습을 수행한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인지적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즉, 사회적 학습내용은 개별적 학습방식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곧 사회적 학습이 개별적 학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학습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Lee, Hye-Jung, 2004; Lee, H. & Kim, I.,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교육에서 중심 가치로 대두되어 왔던 IQ가 아닌, 다른 영역의 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IQ 지상주의의 획일성을 벗어나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Q(정서지능), MQ(도덕지능), CQ(창의지능)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개별적인 능력과 달리 그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 NQ(Network Quotient; 공존지

수)이다.

NQ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의 지수이다. NQ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쉽고, 그 의사소통을 통해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성공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강조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스스로 꾸준히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그 사람의 능력과 바로 직결된다. 사회적 학습은 인지적 학업성취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NQ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자 평가방법이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e-Learning 환경에서 토론학습, 협동학습, 조별 프로젝트학습 등의 모습으로 쉽게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밖에서 그 경험을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동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자나 교재로부터 배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교수자의 세심한 수업설계를 통해 잘 구조화된 사회적 학습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학생들은 또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

... 나는 이제껏 협동학습 수업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조 학당부분을 보고선 도대체 이게 수업시간에 뭐하자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수업이 가능한 것인가? 50분 수업에 이렇게 움직이고 아이들더러 읽으라고 하고 해서 질도나 나가겠는가? 싶었다. 그러나 의외로 더 인터넷을 찾아보고 실제 교사들의 사례를 읽어보고 할 때, 이 강의의 <마무리하며...>에 올라와 있는 우리네 동료들의 이야기처럼 협동학습은 삶의 생존 양식과 닮아 있고 다만 정의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학생들이 정적순으로 일렬로 세워지지 않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1등하는 친구에게 30등하는 친구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알며, 유모어를 사용하며 침묵할 때 침묵하며, 자기의 순서를 지켜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칭찬할 줄 알며, 나의 성취가 친구들의 박력으로 이어지는....이 모든 항목들이 협동학습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 학자들의 노력으로 수업 교과에 따른 적절한 모형들이 개발되었고(각 모형들은 소그룹의 형성부터 학생들의 역할분담, 수업진행방식과 평가방식 모두를 포함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런 모형은 기존의 소그룹의 단점들 -무임승차나 봉효과같은-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협동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정형화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훈련될 수 있게 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비교적 한줄 서기에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전히 인정받고 혜택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나의 형제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류이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 우리들의 말과 생각 속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가치 없고 우리는 그들보다 우등하다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발견하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경쟁하고 이기고, 경쟁하고 이기고... 물론 나의 이런 고백은 마치 경쟁적 수업 체계 때문에 인격 형성조차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비난하는 듯이 들리겠지만, 만일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협동함으로 일을 해내어 나가는 것을 12년의 학생 신분 때부터, 민감한 사춘기 시절에서도 배울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이 좀더 수평적이고 열려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배울 때부터 그러했으면 더욱 좋겠다.

- 처음으로 온라인 협동학습을 경험한 한 대학생의 강의평가에서

참고문헌

- 이혜정, 김인수 (2008). 온라인 조별학습에서 상호작용 메시지 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동료평가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육개발협의회 동계 심포지움 자료집, pp.121-144.
- 이혜정, 홍영일, 손지영 (2007). Blended e-Learning 환경에서 학생 간 온라인 피드백 유형이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 13, No. 3, pp.141-167.

최우열 (2007). 공대졸업생 공학교육 평가 '안팎 천지차이' . 동아일보 2007년 6월 28일자, p.1.

Lee, Hye-Jung (2004), Influence of Instructional Design and Management Style On Student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Online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Proceedings in 2004 International Symposium and Conference: Educational Media in Schools,(Osaka, Japan) pp.29-36.

Lee, Hye-Jung & Kim, Insu (2007). Blended e-Learning Strategies for Effective Teaching in Traditional Universities,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Vol. 8, No. 1, pp.71-90.